7번. 항상 노력하는 김찬희 (완료)

·내 인생의 명언: 기회는 가만히있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다가온다.

· 나의 MBTI 유형 : ENFJ
· 우리 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 착한 친구들
· 만약 내가 학교에 3일 더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것이다.
· 6학년이 되어 성장한 점: 친구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향상했다
· 중학생이 되어 가장 바라는 점 : 제발 반 배정 잘 되라~!
· 나의 버킷리스트 3가지 : 수학여행 가기, 코로나 끝나고 가족들과 여행가기, 중학교 장학금 받기
·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얘들아, 학교가는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우리 더 사이 좋게 지내보자~~~~

제목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오늘은 퇴원하고나서 오랜만에 학교에 왔다. 근데 오자마자 책상위에 쌓여있는 과제들을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래도 못한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

제목: 마! 느그 사장님 마트안에 있나?
입점허가를 받은 P-mart를 반대하는 시장 사람들의 주장은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시장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되고, 자신들의 경제상황과 피해를 입게된다. 또, 생활이 어려워지게되고 가정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시장옆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제목: 물건을 교환 해볼래?
무역놀이를 하기전에는 무역은 기업과 정부가 다하는줄 알고있었고 자기가 원하는데로 무역을 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역놀이를 직접해보고 나니까, 기업과 정부가 다른나라와의 무역을 얼마나 힘들게하는지, 수입 또는 수출을 하려고했던 나라와 합의가 안되면 답답하고 한나라의 경제사회가 폭락하고 망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 무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서우리나라의 경제활동,무역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

제목: 6.25 이야기
주인공 덕수가 6.25 한국전쟁을 맞이 했을땐 나보다도 어렸는데 동생을 잘 챙기는 모습이 멋있고 감동적이였다. 하지만 배를 타다가 동생을 잃어버린 장면이 나왔을 땐 안쓰럽고 슬펐다
덕수가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가 위험에 처해서 간신히 빠져나왔을때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한 시기에 살고있는건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
또 동생의 시집 비용을 벌기위해서 목숨이 위험할수도 있는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을때는 덕수의 희생정신에 감탄 했다. 덕수는 항상 자신을 위해 살지않고 남을 위해 살았다. 그런 덕수의 희생정신에 감탄했고 그 시대에 살았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스럽다.

제목: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쯤 될까요?
오늘 통일교육을 한 소감을 먼저 말하자면 아주 재밌었고, 새롭게 알게된점도 많았다. 통일교육을 한 후, 나의 북한에 대한 생각은 조금 변한것 같다. 처음에는 우리민족이 갈라져서 70년동안 떨어져 살아서 서로 어색해졌기 때문에 나도 북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있었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도 듣긴했지만 진짜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린 떨어져있어도 결국은 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한과 우리의 문화차이와 생활모습을 수업을 듣기 전에 보다 많이 이해할수있게 됐다. 또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듯이, 북한도 우리와의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을것이라고 믿고있다. 물론 70년 이나 분단 되어있었기 지금 당장은 통일하기 힘들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라도 평화통일을 이룰수 있을것이다

8번**.** 올해 키 많이 큰 김평강**(**완료**)**

·내인생의 명언: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

· 나의 MBTI 유형 : E N F P
· 우리 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 우리반최고
· 만약 내가 학교에 3일 더 나올 수 있다면: 공부할것 같다.(수학이나 영어)
· 6학년이 되어 성장한 점: 잠을 일찍잠, 아침밥 먹음, 일찍 일어남, 키가 많이큼(12cm)
· 중학생이 되어 가장 바라는 점 : 키가 많이 크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 나의 버킷리스트 3가지 : 밥 잘먹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부모님 말씀 잘듣기
·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1학년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야 중학교 가서도 잘 지내자

제목 :마음세줄공간(7월 27일)
오늘부턴 금요일까지 4교시이다 금요일엔 방학인데 너무 더워서 더위를 피하려고 방학을 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무더위 전까지 수업을 더 열심히 참여해야 겠다

제목: 재미있는사회수업
처음에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대가 4월달이였는데 벌서 마치는게 너무 시간이 빠른것 같다... 내가 사회에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인데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 재미있던것 같다 사회하면 뭐 외우고 어렵고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조금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역사가 참 미스테리해서 더 재미있던것 같다 다음 사회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참여해야 겠다

제목: 통일이 된다면?
5학년때도 통일에 관련된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도 했다. 평소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학기초에 국제시장이라고 6.25 전쟁때 이산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서 만나는걸 보고 슬퍼했었는데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들이 점점 줄어들수 있을것 같다. 오늘 활동중에 올림픽때 중국한테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북한과 남한이 한팀으로 힘을 합치자 마자 금메달을 딴걸 보고 더욱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아리랑이나 전통 노래, 한글 등 갈라지기 전 문화는 조금씩은 달라도 똑같다는것도 알았다. 북한이나 우리나 한글을 쓰는것이 같기는 한데 조금씩 말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북한의 언어도 더 궁금하기도 하다. 예전에는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북한과 통일에 대한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 관심이 생기더니 지금처럼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다. 앞으로 통일 될지, 통일이 되면 언제될지, 통일이 안될지, 전쟁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면 하는사람을이 많고 나도 그런데 되면 좋겠다.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을 넘어서 금강산을 가고,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가는것이 아닌 북한을 통해 백두산을 가는날이 오면 좋겠다.

제목: 추석에 집에서
오늘부터 추석이다. 추석이라 좋기도 하고 코로나땜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다. 쉰거는 사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쉬긴 했는데 어제는 휴일이고 오늘부터 추석이다. 추석이라고 하면 딱 전과 송편이 있는데 엄마는 전을 부치는데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겨서 뜨거워하셨는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까, 참고 계속 전을 부치셨다. 나는 컴퓨터를 하다가 질려서 형한테 놀아달라고 했는데 엄마 일이나 도와주라고 형은 힘들다면서 꾸중을 했다. 근데 난 요리를 못해서 엄마일은 못도와주고 대신에 심부름을 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용돈을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또 그 용돈을 모조리 저금을 했는데 뿌듯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은 못지낼것 같았는데 보내서 좋고, 내년에는 설날과 추석, 다 코로나 없이 지내면 좋겠다. 코로나가 갈수록 태산인데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무너진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생기면 좋겠다.

제목:나의 성격은?
오늘은 MBTI 진로탐색이라고 내 성격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성격중나는 ENFP라는 유형이 나왔다. 평소에 내 기분이나 감정, 성격에 대해 그렇게 궁금증을 가진적이 없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성격에 관심이 가져지고, 성격을 알아봐서 좋았다. 평소에 그냥 기쁘게 살아서 그런지 스파크형이라는 활기찬 유형이 나온것같다. 그래서 기쁘다. 혹시나 내가 고른유형과 내 성격이 다르지는 않을지, 걱정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진짜로 나랑 비슷하고 활발한 유형이 나와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반 유형중에도 가장 많이 나온게 나랑 같은 유형인ENFP인데 우리반 애들이 나올지 예상은 했지만 가장 많이 나올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가장 많은 우리반 유형으로 나와서 뭔가 동질감 같은게 느껴져서 좋았다. 조금 다른점도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서 괜찮았고, 특히 나랑 성격이 딱 맞는게 있어서 약간 소름이 돋을때도 있었다. 처음으로 이런 성격유형 테스트라는걸 했는데 재미있었고 뭔가 평소에 나에게 관심이 없던 나에겐 새로운 활동으로 다가와서 새롭고 의미있던 활동이였던것 같다. 이 활동으로 많은것을 알았고,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해도 괜찮을것 같다.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더 이해가 잘됬고 활동도 재미있어서 정말 좋은 활동이였던것 같다.

9번.많이 먹는 현준이(완료)

·내인생의 명언: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 나의 MBTI 유형 :ENFP
· 우리 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행복한 반
· 만약 내가 학교에 3일 더 나올 수 있다면:더 열심히 수업을 듣기
· 6학년이 되어 성장한 점:집중력
· 중학생이 되어 가장 바라는 점 :기타 배우고 싶다.
· 나의 버킷리스트 3가지 : 수학여행가기, 에어팟 사기, 무선충전기 사기
·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저는이만 중학교로 향해 떠날게요 이만 안녕~~

제목 : 이것은 역할극인가?
6월 25일 어제 연극으로 사회수업을 했다. 선생님께서 경수랑, 기철이의 연기를 잘하셔서 집중이 잘 되었다. 그리고 수업이 생생해서 좋았다.

제목: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무역!
원격수업중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로 머니게임을 배웠다. 머니게임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 사례로 수입과, 수출의뜻을 배웠고, 중국이 우리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한다는 것을을 배웠다. 또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점은 1. 의생활: 옷 재질이 비슷해보여도 원산지는 각각 다를 것이다. 2. 식생활: 꼭 다른나라에 가지 않아도 세계각각의 나라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3.우리나라 주택, 아파트가 외국식으로변화되고 있다. 4.여가생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책이나영화도 수입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왜? 다른 날에 공장을 짓는지 궁금 했는데 그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건비가 싸서 기업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그다음 다른 나와 경제성장을 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세탁기 수출•한국 세탁기 잘팔림•미국 세탁기 잘 안 팔림•미국 세탁기 기업 손해 문제가 생긴다. 심하면 그 기업이 망해 회사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미국은 한국에게 세이프 가드를 연장해 달라고 했다. 세이프 가드는 수입업체가 제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을때 발동되는 조치이다. 이렇게 배우고 학교에 가서 경제성장 게임을 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무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석유와 노동력이 많은 나라인 중국과 사우디와 무역을 했다. 그리고 무역을 할때 살려는 가격이 높아 힘든점도 있었다. 그래서 기업가 경재가 힘들게 무역한다는 것을 일게 되었다.

제목:세계여러 나라로!
오늘은 세계여행 프로젝트의 막을 치는 날이 였다. 우리모둠은 칠레를 맡았고 발표는 나와 현정이가 했었다. 처음 내가 여행한 나라는 네팔이였다. 네팔은 옆반 유인이가 발표하였다. 처음 네팔 보고서를 보고 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반이 다 같이 발표중이여서 조금 시끄러웠다.(절대 현준이가 시끄럽게 한거아님) 하지만 네팔모둠도 질 설명한 것 같다. 그 다음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가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핑크 돌고래 였다. 돌고래가 핑크색이여서 그런지 돌고래가 돌고래 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행을 2번하고 다른 친구들을 여행시켜 주러갔다. 조금 아쉬운 것은 칠레가 인기가 없어 발표를 3번씩 해야 하는데 2번 밖에 하지 못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 기분은 상쾌했다. 그리고 이 세계여행 프로젝트를 한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나중에 가보고 싶은 나라는 케냐다인데 캐나다의 대해서 발표한 모둠이 없어 그것도 아쉬웠다.

제목: 시장에 가면~
이번 6학년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또 다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나는 1학년때 이 영화가 경제에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몰랐다. 하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경재적인 관점에서 보니 새롭게 보였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덕수는 어렸을때 흥남철수 작전 때문에 아버지와 막내동생과 헤어진다. 그후 덕수는 한 집에 가정이 되었고 항상 가족들을 지키게되었다. 덕수의 남동생이 서울대에 합격 했지만 입학비 때문에 포기 할려고 하였지만 덕수가 파독광부에 신청해서 힘든 나날을 견디며 동생의 입학비를 내준다. 그리고 덕수는 다시 우리나라로 귀환하게 된다. 그런데 덕수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싶어 해서 엄마와 싸우게 된다. 그래서 덕수는 다시 베트남 파병에 참가해 여동생의 결혼비를 마련해주게 된다. 하지만 덕수는 참전중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한국으로 귀한해서 가족들이 걱정하였지만 덕수는 계속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했다. 그리고 티비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래서 덕수는 아빠와 막내동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방송에 나가기로 했다. 덕수는 막내동생은 찾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까지 찾지 못하였다. 이 영화를 보고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베트남 파병이 외환을 벌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나큰 도움을 준 것을 알게되었고 6•25전쟁이후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이 놀랍다.

제목: 통일 되겠지 아마두?
오늘은 통일교육 수업을 들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들었다. 나는 방송반 때문에 9시 5분 정도 살짝 늦었다. 먼저 1교시에는 판문점 에어컨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처음 제목을 듣고 판문점? 어디 물건 파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다. 근데 판문점이 그만큼 중요한 곳인지 몰랐다. 근데 그 판문점에 에어컨이라니! 상상도 하지못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점은 한장면에서 에어컨을 고치다가 불이나서 불을 끄기위해서 물과 소화기를 마구마구 던졌다. 그래서 소화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해지고 군인들은 물싸대기를 맏았다. 그리고 안개가 걷친 후 북한군인들과 남한군인들이 강에서 물 놀이를 하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이유는 통일 되면 이렇게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이 이 장면처럼 같이 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2~3 교시에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공통점, 통일의 중요성, 북한의 말, 북한과 통일이 되면 여행갈 수 있는 나라를 배웠다. 그 중에서 통일을의 중요성과, 북한의 공통점이 기역에 남았다. 먼저 통일이 되면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진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통일은 해도 되고 늦게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통일이 심각하다고 생각이든다. 그리고 북한과 전통의상이 같고 전통민요도 똑같아 신기했다.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멀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4교에는 팔찌 만들기와 통일 보드게임을 했다. 팔찌 구슬이 반짝반짝해서 꼭 간직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팔찌는 바로 사라져 버렸다.(내가 한번 사라져볼게!) 그 다음 통일보드게임을 했다. 나의 직업은 매국놈이였지만 국민인척 친구들을 속였다. 하하하 그래서 대통령들 보다 지지도를 더 많이 만들었지만 나림이의 추리로 나의 직업이 들켜 버렸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통일 보드게임을 하여서 재미있고 나중에 한번더 할수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수업을 듣고 통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어릴때는 통일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통일은 왜? 해야 하는지,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알게되어 뜻 깊은 날이기도 하였다.

10번. 잘 웃는 서미옥(완료)

·내인생의 명언 : 행복은 몸에 좋다
하지만 마음에 힘을 길러주는 것은 슬픔이다.

· 나의 MBTI 유형 : ISTP
· 우리 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 꽃이피는중
· 만약 내가 학교에 3일 더 나올 수 있다면 : 친구들과 남아서 술래잡기를 할 것이다.
· 6학년이 되어 성장한 점 : 나 자신을 더 아끼게 되었다.
· 중학생이 되어 가장 바라는 점 : 집 청소 좀 많이 하자..
· 나의 버킷리스트 3가지 : 1. 24시간동안 잠 안자기 2. 코로나 없어지면 바다 가기 3. 하루동안 이불에만 있기
·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다들 고마워

제목 : 마음 세 줄 공간
2020년 7월 16일
벌써 목요일 오늘은 과학, 수학 단원평가를 본다. 이번에는 문제를 제대로 보고 실수하면 안된다!
생각해보니 내일이 벌써 금요일 시간은 참 신기하다. 월요일 다음은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다. 재미가 없으면 느리게 가는데 나는 재미있나보다

제목 : 시민들의 소리는 옳을까?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모로 편리한 P-MART로 갈 것이고 다 P-MART로 가니까 문덕시장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문덕시장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물건을 못 사고 생존에도 문제가 생긴다. 둘째 문덕시장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문덕시장 문덕시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망하게 되어서 문을 닫게 되면 경제에 지장이 생긴다.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체인점 일 뿐 본점이 아니라서 실제 본점만 이득이고 우리 지역에는 이득이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이 일은 생활에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일이고 법에도 일정 받았다. 시민들이 조용히 있으면 달라지는게 없다. 그래서 촛불집회 등 여러 사건들처럼 국민의 소리가 있어야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위는 옳은 것이고 사람들의 생활, 생존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문덕시장이 없으면 경제에서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법으로도 인정은 받았지만 시민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한 것이다.

제목 :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내가 만약 거북이라면 안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북이와 토끼는 많이 다르고 토끼도 거북이한테 지고 많이 억울해서 거북이처럼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경기에 나가서 지게 되면 수면제나 마취총에 대한 의혹을 사람들이 부풀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슈퍼 거북이의 집에 있는 물건이 되어보고 많은 것을 했다. 거북이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도 봤고 그 결과 거북이는 진짜로 슈퍼 거북이가 되었다. 근데 거북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하고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 할까 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맘대로 다시 느리게 살고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다른 사람시선 신경 안 쓰고 살아야겠다.

제목 :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이번 세계 여행 프로젝트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솔직히 팀원끼리 싸우기도 해서 조금 위기가 있었다. 다들 취향이 다르기도 하고 서로하는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도 위기를 넘기고 완성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발표를 안 해서 많은 나라를 여행 했다. 네팔, 브라질, 그리스, 남아공 등.. 다들 발표를 잘하기도 했고 웃겼다. 근데 팀원들이 옆에서 장난을 쳐서 집중이 잘 안 되긴 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 했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인 나라가 있었다. 첫번째로는 그리스! 그리스가 왜 기억에 님냐면 다른 팀들과 다르게 PPT로 했고 위인이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있는 분들 이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남아공이 기억에 남았다. 왜냐하면 나라들을 여행 할 때 팀원들이 시끄럽게 했는데 남아공은 조용히 있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덴마크에 가고 싶다! 이유는 하나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 프로젝트는 내가 다른나라에 문화도 알게 되고 재미도 있고 좋았다.

제목 : 광주가 그랬다고?!
기철이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린 나이에 계엄군한테 총을 맞아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기철이 아버지 뿐 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가족 또는 친구를 떠나 보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었다면 그리고 계엄군한테 잡혀서 총을 맞고 떠났다면 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단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또 경수도 자신의 친한 친구가 바로 앞에서 계엄군한테 총을 맞아 쓰러졌는데 그 시간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직 너무 어렸고 나중에 커서 크게 될 수도 있었고 직업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 기철이 부모님처럼 가족을 잃고 경수처럼 친구를 떠나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하다. 또 희생 하신 모든 분들이없었다면 우리가 살고있는이 세상은 지금처럼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번 사회 수업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수 있었던 것 같다.

11번. 만들기 왕!심서연[완료]

·내인생의 명언:나의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온 세상의 나에겐 적이된다.

· 나의 MBTI 유형 :ESFJ
· 우리 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기 : 다양한친구
· 만약 내가 학교에 3일 더 나올 수 있다면:학교 아니면 친구들과 많이 못보니깐 잠시동안이라도 즐겁게 놀고 싶다
· 6학년이 되어 성장한 점: 글쓰기,책읽기(온작품읽기로 책을깊이있게 읽어서)
· 중학생이 되어 가장 바라는 점 :공부실력늘기,독서 많이 읽도록 노력하기
· 나의 버킷리스트 3가지 :코로나 백신이 생겨서 가족들과 여행가기,용돈많이 받기,내 취미 찾기
· 우리 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 1년동안 온라인 학습 때문에 많이 못봤지만 그래도 즐거웠고,항상 행복하자,,

제목:마음세줄공간
2020년 11월 17일
어제 영화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영화주제를 아무걸로 썻지만 그럴만한 내용이 안나와서 고민이됐다… 곰곰히 생각해서 모둠끼리 뭉쳐서 썻지만 그래도 생각 보다는 완성작이 되게 뿌듯할것같다. 기대기대

제목:나의 소심한 여행..
나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총 10곳을 다녀봤지만 난 역시 재가조사한 나이지리아가 계속생각났다 난 처음엔 나이지리아를 뽑고 솔직히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처음엔 좀 멘붕이 왔었다. 그래도 내가 책임지어야 되는일이니 열심히 해야겠다! 나이지리아는 솔직히 조사할 내용도 없었다 그래서 더 차곡차곡 열심히 했다!! 조사시간 마지막 때쯤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나이지리아에서 더 잘알것같은 느낌이들었다….하하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할수있다는것이 자랑스럽다 ㅎㅎ 보고서를 만들면서 협동이 잘 안되서 불편하긴했지만 모둠애들이 발표도 해주고 자료조사도 꽤 해주었다. 우리 모둠이 이만큼 왔다는게 좋고 뿌듯했다. 그리고 덴마크음식 2가지를 꼭 먹어보고 싶다!!(비쥬얼도 짱이었다) 암튼 다른모둠도 열심히 잘한것같다!! 이런 기억남은 활동을 진행해주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다!!

제목:그리운 날……
예전에는 역사를 왜 배우는지 잘몰랐는데(5학년때) 6학년이 되어서 꼬물꼬물거꾸로현대사를 배우니 왜 배우는지 깨달았고 정말 4.19혁명,6월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등 이런것이 실제인것에 대하여 더욱더 슬프고 눈물이 나는것 같다 ….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런 깊이있는 역사를 잊고싶지않아.많은사람이 죽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선생님과 1987이라는 영화와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로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연기자분들도 더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연기해주신

분들도 대단하다.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연극같은것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그리고 재미있고 뿌듯했던것이 기억에남는다.선생님이 특징을 잘살여서 연기를 해주신것같다.박종철분,이한열군,김주열군등 이분들의 아픔을 잊을수 없을것같다.그분들에게 미안하고또 고맙고 죄송하다 그리고 그일을 되돌려보면 정말 억울함이 계속 남는것 같다. 이런일들이 실제로 있다는것도 믿기지도 않았다 여러 사건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아픔"

제목:나의 소심한 생각이라고 해야하나...?
나는 오늘 통일교육을 했다. 나는 그래도 전에도 통일교육을 해봐서 통일에 대하여 어느정도는 이해가 갈줄알았다.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려져있는데 그 면적은 다 우리나라가 다차지하는줄 알았다. 근데아니었다 그 가운데에 선이 북한,남한이 나누어져 있다는사실을 교육을 통해알았다 ... 애들은 다알고있었는데 나만 모르는것같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영화에서는 왜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총을 왜쓰는지 이해가 안됐다. 우리나라와 사이가 그렇게 안좋았나...?혹시 전쟁이 또일어나면 어떡하지? 아직은 전쟁이 안끝났고 아직 휴전 상태여서 언제 전쟁이 날줄 모른다. 2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통일하면좋은점을 소개해주려는것 같다! 난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것같다! 이산가족이야기를 들었을때 국제시장이 떠올랐다.(이산가족을 만나는 장면)을보고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는데 이 시간일때도 마음이 아팠다.. 가족이랑 해어지는것은 정말 고통이고 슬픈마음이 계속 될것이다.지금은 이산가족을 몇명을 만났을지도 궁금하고 또 정말 전쟁이 날까봐도 궁금하다 이산가족의 마음을 이해해도보고..이 시간은 정말 뜻깊은 시간인것같다.

제목:나의 꿈은 무엇일까?
처음장면을 보면 히라노유키는 꿈을 결정하려고 많은전단지에 껌을뱉어서 결정을 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커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혹시 나도 대학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팠다...내가 커서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없으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너무긴장이 됐다..히라노유키가떠날때 사람들과 같이있음 모를까 혼자여행을 떠나는 모습을보고 정말 외로워보였다. 그리고 또 산림관리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유키가 다친것도,혼나는것도 너무 불쌍해보였다.그래도 히라노 유키는 용기가 대단한것같다 산속에서 잃어버린 겐지도구하니깐.. 나도 언젠가는 저런용기를 가질수있는 용감한어른이되고싶다. 마지막 부분에 유키가 떠났다가 다시돌아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